

극 · 단 · 굴 · 령 · 쇠

정기송년공연

호적등본

이만희 / 작

장규호 / 연출



1998. 11. 14 ▶ 15

늦은 7시(14日)

4시, 7시(15日)

공연문의 (0392)631-8070

속초문화회관

주 관 : 한국 연극협회 속초지부
극 단 굴 령 쇠
주 최 : 속초시 · 예총 속초지부
후 원 : 강 원 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속초시민
후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한국관광 1번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를 300일 앞둔 시점에서 이를 자축하고 범시민후원회를 출범시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봄” 조성과 시민의지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만 속초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청초호 유원지에서 내년 개최되는 관광박람회는 그 어느 박람회보다도 규모가 큰, 세계 50여개 국가, 70여개 지방정부, 200여 기업체가 참가하고 300만명 이상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를 「세계 속의 관광강원도」로 발돋움시키고 이곳, 우리시의 발전을 10여년 앞당기는 경이적인 효과를 가져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본 박람회를 통하여 우리시가 「한국 관광지의 메카」로서 질적차원을 한단계 높이면서 새로운 이미지의 관광지 창출과 재도약으로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속초시민 여러분!

우리시가 세계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관광박람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일과 손님맞이 준비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출범한 속초시민후원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시민과 행정이 하나로 조화를 이뤄 명실공히 박람회 지원 기반조직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하면서 오늘 자축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앞으로 '99국제관광박람회 속초시민후원회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과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한 가운데 전시민 모두가 범시민 손님맞이 「질서·친절·청결운동」에 앞장서는 동시에 박람회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하시고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과 후원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연극공연을 준비하여 주신 연극협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11. 14

속초시장 동 문 성



연

극예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등(대립)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노소의,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잃어버린 자와 얻은 자의, 군림하는 권력과 지배받는 다수의,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나아가서는 나와 또다른 나와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진면목을 들여다 보는 예술이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객 여러분은

무수한 우리의 이웃들을 무대 위에서 만나고 같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만들기 위한 연극인들의 몸부림은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연극인들은 가상 인물과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 또 하나의 인물을 완성하며 그 속에 관객의 정서를 담아 마시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아닌 허구의 모습으로 언제나 관객에게 다가서는,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예술가로 남는, 본래의 내 모습은 관객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 채 관객들의 주위를 맴도는 영원한 이방인! 관객 속에 들어가 같이 웃고 같이 호흡하고 싶건만 관객들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직 무대 위의 모습만이 배우들의 진면목일 것이라는 완벽한 맹신을 앞세워 배우들의 평범한 일상은 허구일 것이라는 믿음이 관객들의 뇌리 속에 자리잡고 있기에 배우들은 불쌍하게도 관객들의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 한 작품이 끝나면 부랴부랴 또 다른 작품의 인물 속으로 뛰어 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관객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배우도 우리의 이웃이며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착한 소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뛰어난 어떤 절대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남이 못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을 몸과 소리로 표출하고 대신 절규하여 주는, 관객들의 아픔을 대리 표출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배우는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우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어울려 사는 우리 이웃일 뿐입니다. 이방인으로 떠도는 우리의 송고한 배우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같이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도전을 보았습니다.

1999년 강원국제관광EXPO 300일 전야행사와 때를 같이하여 공연되는 행사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이 될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부디 격려와 질타의 목소리도 함께 섞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 11. 14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장 규 호

『호적등본』

은 원래 『풍인』이라는 제목
『문디』으로 '83년 월간문학에 게재
되었고 이후 개작을 몇 차례 거쳐 '89년에 『문디』라는 제
목으로 3개월간 공연되었다.

『문디』에서 『호적등본』으로 다시 개제(改題)한 이유는 「
문디」가 경상도 말로 그네들을 직설적으로 지칭하기에 그
들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비하시키는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문둥병에서 나병으로, 지
금은 한센병-나병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 이름-으로
개명(改名)키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이때 미력이나마
동참한다는 자세에서 고치기로 하였다.

작품 내용 중에서 “한놈 두놈 뺑꾸 타고 민들에 쫓다
짜리뻐다 똥 땡”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와 비
슷한 운율로 1부터 10까지 세면서 놀았던 기억을 소록도
은어로 대치시켜 본 것이다.

뺑꾸는 쫓차를 뜻하고 민들레는 작부, 짜리는 경찰을 뜻한
다.

고로 “한놈 두놈 쫓차 타고 작부와 놀아나다가 경찰이 쫓
아온다 도망치자 똥 땡”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깥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망을 희
화(戲畵)해 본 것이다.

이 『호적등본』을 쓰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작품이 미래에도 생명력이 있는, 다시 말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싶은데, 한센병이란 것이 요즘만해도 발병이 거의 안되고 있고, 미래에는 그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병으로만 기록될 것이기에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두려운 한계상황은 역시 죽음이고 그 죽음에 애닦은 모습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이 한센병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고 인간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중간자(중간자)나 불완전자(불완전자)의 숙명적 의혹은 미래에도 계속 되리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소록도는 체념의 연속일지도 모르며 그 체념을 운명으로 삼는 좌절과 고난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담담하고 잔잔한 삶을 그대로 담고 싶었다.

자학적이며 저주적인 삶보다는 그것을 체념으로 승화시킨 자연인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추려내고 싶었다. 한마디로 죽음을 눈 앞에 둔 단독자의 체념의 미학을 시(詩)로 쓰고 싶었다.

시인(詩人)은 자기의 염원을 시로 노래한다.

신자(信者)는 그의 구원을 신앙을 통해 추구하려 한다.

한센씨(氏)들은 그들의 완치를 빌며 거듭 태어날 것을 희구한다.

삶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난의 행진곡일진저.



달수(김 귀 선)

- 1963년생 · 서울예전 연극과 졸업
- 배우경력 16년 · 극단 굴렁쇠 대표
- 1991년 강원연극제 남우주연상 수상
- 1991년 전국연극제 남우주연상 수상
- 1994년 강원연극제 남우주연상 수상
- 범죄의 시간, 그대여 또다시, 피고지고 피고지고, 꿈추왕국 등 연극 50여편 기획, 연출, 출연



호준(김 준 수)

- 배우경력 5년
- 전국연극제 참가
- 미스 줄리, 호스도메르 외 10여편 출연



낙중(문 철 환)

- 배우경력 4년
- 강원연극제 참가
- 피고지고 피고지고, 보잉보잉 외 10여편 출연



총기획

김 병 수

- 경력 5년
- 강원연극제 참가
- 강원개발 대표



소품

김 형 관

- 경력 16년
- 강원연극제 미술상 수상



제작

김 인 환

- 경력 10년
- 강원연극제 참가
- 연극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무대장치

김 만 영

- 경력 2년
- 강원연극제 참가



무대미술

박 영 군

- 경력 5년
- 전국연극제 참가



조명

윤 종 국

- 경력 5년
- 전국연극제 참가



음악

남 상 진

- 경력 9년
- 강원연극제 기술상



진행

정 경 숙

- 배우경력 9년
- 연극 15편 출연

한국연극협회
극단 굴렁쇠가
참신한 단원을
모집합니다
T.631-8070